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4차 세션, 서론, 4부, 속죄 교리의 역사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서론, 4부, 속죄 교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속죄 교리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니사의 그레고리로 넘어갑니다. 내가 말했듯이, 서양에서 지배적인 모티브는 사탄에게 몸값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그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동방 교부이며, 그의 위대한 교리 문답에서 미끼가 달린 낚시바늘로 구원을 비유한 악명 높은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고리는 우리를 대신한 대속물이 그것을 요구한 그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 본성의 베일, 즉 예수의 인간성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물고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성의 낚시바늘이 육체의 미끼와 함께 삼켜지고, 그렇게 하여 빛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성 전체에 주입되어 우리의 본성이 신성해지고 죽음에서 구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레고리의 출발점은 타락한 인류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인류를 합법적으로 매수된 노예로 여겼습니다.

이런 근거로 그레고리는 대속의 대가가 악마에게 지불되어야 하는 반면 악마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을 추구했다고 의심스럽게 추론합니다. 악마는 인류를 속였기 때문에 신은 악마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대속이 누구에게도, 심지어 신에게도 지불된다고 암시하지 않으며,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암시합니다. 확실히, 그것은 악마에게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대속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와 생명으로의 속박입니다.

사실 저는 거기서 좋은 점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나쁜 점이 있고, 서양적 모티브를 제시하기 위해 동양적 아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는 이 속임수 아이디어로 경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물입니다.

마가복음 10:45, 유명한 대속 말씀에서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목회서에서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니 맞는 말씀입니다.

악마에게 돈을 지불? 아니요. 악마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 아니요. 악마가 속았나요? 물론, 자신의 눈멀음과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레고리와 서양의 사탄에 대한 대속의 전통은 십자가를 사탄에게 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에게 돈을 지불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31절의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속죄의 그림을 논하는 주요 장이며, 지금은 이 세상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물론 하나님 아래 있는 마귀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는 쫓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과

악마들을 향해 있지만, 대속물이나 그들에게 빛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골로새서 2:15,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권세와 통치자들을 조롱하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드러내셨고, 히브리서 2:14, 자녀들이 혈육을 공유하였으므로 그리스도도 같은 것에 참여하셨으니,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레고리의 그로테스크한 그림, 즉 하나님께서 예수의 인간성으로 마귀를 유혹하는 그림,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듯, 그리스도의 신성의 황금 갈고리 아래에 마귀가 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들이는 그림,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대속을 주는 것조차 정확하거나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는 성경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리게네스(185년경~254년경)는 이 주제를 포함한 여러 주제를 가르쳤습니다. 속죄는 승리이며, 특히 악한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자 지혜이신 그리스도는 지혜롭고 완벽한 분으로서, 그들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겪으셨으며, 인류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경건함을 위해 죽어서 온 세상을 지배했던 그 악령, 악마의 권세를 전복하는 데는 터무니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교부들의 공통 주제이며, 사탄에게 드린 대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악마는 타락으로 지배권을 얻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우리의 첫 조상들을 속였고, 속였고,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사물에 대한 이 부정확한 이해로 그에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서양이 주로 사탄에게 대속을 바치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과 함께 하는 괴상한 속임수는 없었다면, 동양은 주로 신격화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여러 주제를 가진 동방 교부였으며, 그 중 하나가 신격화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296년에서 373년경에 신학적 고전인 말씀의 성육신에 관해 글을 썼습니다. 그가 20살쯤 되었을 때, 저는 신이 은사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와우.

이 책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승리, 즉 *Christus victor* 주제입니다. 그는 창세기의 타락에 대한 설명을 따라가면서, 그 결과 우리는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부패의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양 특유의 특징입니다.

서양 전통은 우리가 정죄받았다고 말한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릅니다. 그것은 법적 언어였습니다. 사실, 테르툴리아누스가 여기에 들어와서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나중에는 안셀름의 용어 중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타락, 죄, 그리고 정죄에 대한 정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동양에서는 부패와 죽음에 중점을 두었고, 신격화가 그것을 극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한 위대한 아타나시우스를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수했다는 이유로 다섯 번이나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더 나은 것도 있고, 더 나쁜 것도 있는 다양한 주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구원론적 주장이었습니다. 말씀,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는 부패는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는 모든 열락에서 자유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죽음을 바침으로써, 동등한 것을 바침으로써 인간 형제들을 위해 죽음을 즉시 폐지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훌륭한 대표자인 동방 전통은, 서방이 십자가를 강조했다면, 맞죠? 다시 한번, 어거스틴에게서. 그는 성육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동방은 십자가형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서방은 십자가, 고난, 때때로 현실주의적 사상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의 끔찍한 고난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동방은 성육신과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부활이, 인용하자면, 죽음의 파괴와 십자가에 의한 정복에 대한 매우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동방 정교회에서 신화를 설명하는데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아타나시우스는 그가, 그 단어가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도록 인간성을 취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받을 수 있도록 몸으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신의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다. 그는 우리가 신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신의 보이지 않는 본질이 아니라 동양에서 신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시간과 공간에 나타난 그의 속성이다.

베드로후서 1:4는 동방 정교회 전통 전체에 대한 증거 본문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부르신 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로 인해 우리에게 귀하고 매우 큰 약속을 허락하셨으며, 그 약속을 통해 여러분이 최악적인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썩어짐에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다시 썩어짐을 보고, 여기서 여러분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는 단어 자체를 봅니다.

저는 톰 슈라이너가 이 맥락에서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슈라이너의 베드로서신에 대한 주석에서, 그것은 신비와 성찬 참여와 같은 동양적 의미에서의 참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절하고 그의 영에 의지하는 그의 백성에게 피조물적 의미에서

그의 속성을 구축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앤 셸먼 아벨라드 앤 셸먼 아벨라드는 각각 속죄에 대한 객관적 관점, 앤 셸먼, 그리고 주관적 도덕적 영향 이론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만족 관점, 주관적 도덕적 영향 관점.

속죄에 대한 객관적 관점과 주관적 관점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죄에 대한 객관적 관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맞죠? 속죄에 대한 주관적 관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그의 십자가가 우리를 내면으로 움직이기 위해 행하신 일을 강조합니다. 이제, 문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문제의 진실은 둘 다 사실이지만, 십자가를 주로 또는 오로지 내면적으로 그렇게 주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 약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근원인 듯합니다. 아벨라르는 그 근원을 제시하는 듯하고, 그는 앤 셸먼을 알고 있었고 그가 한 일을 거부했습니다.

복잡해지니, 한 번에 한 부분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앤 셸먼은 객관적 만족 관점을 가르쳤고, 아벨라르는 주관적 도덕적 영향 관점을 가르쳤습니다. 앤 셸먼은 속죄가 그리스도론과 얼마나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았습니다.

훌륭한 지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함께합니다. 오직 사람이자 신이신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앤 셸먼이 당시의 봉건적 이미지를 그렸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티슬턴은 모든 신학자가 당시 독자들에게 해석적 교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앤 셸먼은 대주교가 되었다.

그는 수도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교사였으며,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인 *Cur Deus Homo, Why God Became a Man*에서 그는 변증법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는 신학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이끌어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논쟁은 앤 셸먼과 보조, 대표 제자 사이에서 구불구불하게

전개되는데, 이는 그들이 실제로 나눈 토론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름은 제자의 허구일 수 있지만 수도원에서 말입니다. 구불구불하게 전개되고, 보조가 오 스승님, 이제 빛을 봅니다, 그런 종류의 말을 하기 때문에 진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좀 진부해지죠. 너무 지나치지만, 좋죠.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앤 셸먼은 학생을 다시 데려올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를 유죄 판결을 받은 역사 신학자라고 부르세요. 흥미로운 내용이고, 지속되었습니다.

앤 셸먼은 이 모든 봉건적 것들, 만족을 만드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 기원이 봉건적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의 영주가 있었고, 농노가 있었습니다. 영주를 모욕하면, 영주의 얼굴을 때리러 가서,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를 모욕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며, 앤 셸먼이 우리가 신에게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제 말은, 성경적 이미지에 의존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그렇게 지정한다면요. 어쨌든 그는 그렇게 했고, 그는 가장 중요한 결과를 신의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것은 속죄 교리에서 큰 개선이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신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인간에게 반항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는 속죄에 대한 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놀라운데, 지금까지는 대체로 사탄을 향한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습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대속물을 주는 대신, 그는 그것을 단번에 거부했고, 신은 사탄을 심판합니다. 그는 사탄을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에게 아무것도 빛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느님께로 향하는데, 이는 주요 업적이며, 나아가, 앞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의 *Cur Deus Homo*는 순전히 학문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안셀름은 몸에 영적인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 그렇죠? 로마 가톨릭 학자 베네딕타 워드, 베네딕타 워드, 성 안셀름의 기도와 명상. 읽어보세요, 울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Cur Deus Homo*에 대한 비판이 표적을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장르, 잘못된 장르 비판입니다. 지금은 학문적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Q&A,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기도와 명상. 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분, 저는 당신 앞에 절하고 당신을 경배합니다.

오 세상에, 그렇게, 페이지마다 페이지마다. 한 남자가 사랑했다. 그는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그는 자신의 속죄를 사랑했다.

그는 구세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글썄요,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안셀름은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는 큰 영향을 미쳤고 기독교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를 썼습니다. 개혁자들이 그의 작업을 개선한 두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말했듯이, 속죄에 대한 안셀름의 주요 저작은 신이 인간이 된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Cur Deus Homo*. 안셀름은 이레네우스의 요약적 접근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면에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이며 새 창조의 저자입니다. 하지만 관찮습니다.

그는 니사의 그레고리와 다른 사람들의 악마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고, 속죄에 대한 설명은 단지 신의 사랑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안셀름 아벨라르, 실례합니다. 그에 가깝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의 이유는 훨씬 더 깊습니다.

제임스 데니는 속죄에 대한 좋은 책인 *속죄와 현대 정신을 썼는데*, 이는 안셀름의 작품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속죄에 대한 지금까지 쓰여진 가장 진실되고 위대한 책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시간적 틀 안에서 그것은 우리를 도약과 한계로 이끌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결합하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구원에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신을 향한 방향을 강조하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안셀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조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동등한 강조를 결합하려고 합니다.

신은 그의 명예에 대한 범죄를 보상 없이, 그의 명예에 대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보세요, 중세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당신은 주님의 모욕받은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바로 이 배상을 제공하셨습니다. 안셀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입힌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셀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인류를 구원하려고 시도한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가졌을 존엄성을 어떤 의미에서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안셀름은 속죄를 하나님의 계획의 맥락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인간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안셀름은 그를, 이거 좀 들어보세요, 신-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와. 정확히 맞아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죽음을 겪으셨다고 강조합니다.

기억하세요, 이사야 53장, 그리스도의 속죄의 자발적인 본질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을 때 그를 죽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그리스도는 자유롭게, 스스로 자유롭게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속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인간이시며, 죄가 없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데 달려 있습니다.

Anselm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로 봉건법에서 이 원칙을 인용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 모욕을 당한 사람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종류의 배상을 하지 않는 한 그 명예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욕과 모욕의 정도에 따라 말입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신에게 만족을 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안셀름은 그것을 딜레마로 제기했습니다. 그는 라틴어로 *out satisfactio* , *out poena* , 만족 또는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은 인류를 처벌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비롭게도 그의 아들이 제공한 만족을 받아들였습니다. 안셀름은 그것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소개합니다. 그는 신이 불의하게 또는 적절한 질서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신에게 빼앗긴 것을 갚지 않는 죄인을 처벌받지 않은 채 용서하는 것은 그의 자유나 자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종종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신은 죄를 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속죄에 대한 주관적 접근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왜?라고 말합니다. 안셀름은 좋은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본성, 자신의 약속,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의 통치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Must는 외부적 강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이 율법과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 율법의 벌을 치르신 것에 대한 강조에 대한 반응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인 소시 누스 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버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티우스는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율법을 완화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글썄, 봐, 넌 법을 하나님이 지켜야 할 외부 원칙으로 만들고 있지 않아? 아니, 법은 하나님 자신의 성격에 대한 계시야. 그는 그저 자신에게 진실할 뿐이야.

Must는 외부적 강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진술처럼 내부적이고 논리적입니다. it is fitting이라는 문구는 외부적 강제에 대한 어떤 생각도 배제합니다.

신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또한 그의 말씀과 성격에 충실하십니다. 저는 Anselm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용문, 신 외에는 아무도 만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 외에는 아무도 만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답군요. 신인이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신은 우리를 구원해야 합니다. 성육신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허세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손가락을 튕기는 것에 대한 대체적인 접근 방식이 아닙니다. 아니, 신은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철학적 용어라고 부르는 것을 감안할 때, 신이 구원하고자 했다는 사실, 절대적인 필연성 또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을 감안할 때, 신은 구원하고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었다면, 이것은 필연성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없지만, 선한 주님, 삼위일체께서는 거룩한 무리를 지어 인류나 많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할 방식이었습니다. 오직 신만이 속죄를 할 수 있었고, 오직 그럴 수 있었고, 그래야 했고, 오직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인간이 속죄를 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속죄는 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하셨는데, 그저 육신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종족의 참되고 진정한 인간성으로 우리 죄에 대한 벌을 치르셨고, 그의 인간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의 신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종족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동정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안셀름은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이 단일한, 단일한 인격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므로 죽을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의 죽음, 신의 죽음, 신인(God-man)은 모든 죄보다 더 큼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시 살아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9:13입니다. 오 세상에.

속죄에 대한 많은 접근 방식과 마찬가지로, Thistleton은 현명하게도 속죄가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모델로 취급되지 않는 한 신약에 통찰력과 해석적 부를 더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완벽? 아니요. 주요 업적? 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서양에서 사탄에게 대속하는 것은 주요 사상이었습니다. 아니, 안셀름은 가장 심오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자신을 향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힘들게 얻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는 1100년에 그것을 여기에서 가졌습니다. 놀랍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개선될 수 있었고, 개혁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르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욕받은 명예가 회복되거나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의가 만족됩니다. 본문, 로마서 3:25-26. 더욱이 그것은 딜레마가 아닙니다. 만족이나 처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아들의 처벌을 통한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입니다.

만족이나 처벌이 아니라, 신의 아들의 처벌을 통한 신성한 만족. 아벨라르는 슬프게도, 그가 비판했던 성 안셀름과는 사실상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오, 아벨라르는 천재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셀름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아벨라르는 그 당시 강사였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강사는 더 나은 강사가 나올 때까지 학생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아벨라르는 윌리엄 오브 샴포가 강의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데려갔습니다.

게다가 그는 창의적인 교사였지만, 그는 항상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당신은 세인트 버나드의 분노를 사고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클레르보의 버나드.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엘로이즈와 약간의 엉뚱한 짓을 저질렀고, 그것이 악명을 떨쳤다. 삼촌의 조카딸을 가르치고, 어쨌든 그 남자는 그를 거세했다. 오, 끔찍한 이야기다.

어쨌든, 그의 가르침에서, 학생들이 이것에 대해 생각하고 생각하도록 자극하기 위해, 그들은 교부들의 인용문이 성경으로 여겨지지 않고, 6가지 중요한 권위로 여겨졌다고 생각하도록 자극받았을 것입니다, 맞죠? 그는 s

ic est et non이라는 유명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 그는 두 개의 다른 칼럼에 교부들의 인용문을 서로 반대하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반대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용문을 쓸 만큼 대담했습니다. 아, 베르나르는 그 지점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오, 불쌍한 아벨라르.

모범주의 또는 도덕적 영향 이론의 주요 대표자로 여겨진다. 그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슬프게도,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저는 안셀름과 아벨라르를 비교하는 박사 학위 논문을 써야 했고,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이미지도 많이 있지만, 왜 제가 그를 아빠라고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주의자들만 그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속죄의 도덕적 영향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를 증조부로 인용합니다.

오, 세상에. 그 후 그는 끔찍한 이단자 파우스트 소치누스, 현대 신학의 아버지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 그리고 역시 파괴적인 현대 신학자 알브레히트 리첼에 의해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말하는 건 죄송하지만, 세상에.

반면에 아벨라르는 삼위일체에 대해 글을 쓰고,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설과 해석을 수행했으며, 속죄뿐만 아니라 윤리도 설명한 정교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게다가 속죄에 대한 그의 작업은 대체로 로마서에 대한 그의 주석에서 짧은 논평에 국한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가 교수대에 매달린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특히 로마서 3:19-26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이 그의 포괄적인 견해를 전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그의 글에서 그의 글 대부분이 번역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로마인의 주석, 적어도 그 일부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희생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구속을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3장에는 구속과 화해, 아니면 적어도 속죄가 언급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슬프게도 로마서 3:19과 26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그는 때때로 의롭다 함은 이전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이 확실히 옳습니다. 좋습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느님의 무료이고 영적인 선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피는 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4대 4입니다 .

하지만 그의 다섯 번째 정의는 더 의심스럽습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현재에 그의 정의를 증명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를 정당화하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그는 태양을 화해의 제물로 내세움으로써 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는 헬라스모스 , 또는 헬라스테리온 , 실례합니다, 화해를 사랑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사랑에서 흘러나오지만, 그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지불된 피의 대가를 얼마나 높이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의 피에 대한 요구를 잔인하고 사악하다고 묘사한 그의 묘사, 무고한 사람은 예수이며, 슬프게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아벨라르는 그가 우리를 사랑으로 더욱 온전히 자신에게 묶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신성한 은혜의 선물로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것이 신의 아들의 속죄에 대해 우리가 말해야 할 전부라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와 다른 사람들은 이 잘 알려진 말을 인용합니다. 속죄에 대한 이론은 긍정하는 면에서는 옳지만 부정하는 면에서는 틀렸습니다. 아벨라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된 기능은 도덕적 영향력,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과 불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이 속죄의 주된 것입니까?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바뀌나요? 네. 아, 중요한 건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죄를 없애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예요.

안셀름은 속죄에 대한 객관적 이론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옳고, 완벽하고, 아니, 하지만 옳습니다.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룬 아벨라르는 현대의 도덕적 영향력이나 모범적 이론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는 단지 모범일 뿐입니다. 아니면 주로 모범일 뿐입니다.

예수가 모범이신가요? 네. 저는 신약성서에서 그가 죽음으로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된 곳을 10군데나 꼽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의 모범이 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개혁자들에 대한 변칙적인 반응 중 하나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 매번, 10번 모두, 예수의 모범은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한 맥락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에 대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그의 모범을 따릅니다. 그것이 속죄의 주요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전혀 속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의 속죄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 루터, 칼빈, 그리고 변절한 소시누스, 보시다시피, 그는 원죄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당신은 속죄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질 것인가요? 매우 결함이 있는 견해입니다. 그로티우스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속죄에 대한 통치 이론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당신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1483년에서 1546년 사이의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체계화 자였다 . 루터는 위대한 설교자였다. 칼빈도 항상 설교자였지만, 루터는 칼빈만큼 체계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루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항상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칭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13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고 썼습니다. 은혜는 사랑의 응답이 아니라 사랑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칼빈도 정확히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루터에 의존하여 종교 개혁 당시에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관례가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그의 대교리문답에서 구속자로서 우리를 사탄에서 하나님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움으로 인도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배상을 하고 내가 빛진 것을 갚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고 묻히셨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을 주목하세요. 은과 금으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18-19, 자신의 귀중한 피로,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

구스타프 아울렌이 쓴 책, *Christus Victor*는 루터가 속죄 신학에서 승리와 패배, 예수와 그의 백성의 승리, 그리고 악마와 그의 악마들의 패배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옳았지만, 루터가 희생, 속죄, 대속에 중점을 둔 것을 과소평가한 것은 틀렸습니다. 사실, 저서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에서 유명한 독일 학자인 폴 알타우스는 루터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두 가지 지배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올바르게 말합니다. *Christus Victor*, 형벌 대속.

정확히 맞아요. 그는 그것들을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하는 것처럼요. 성경은 자체 주제를 결합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꺼내서 살펴볼 수 있지만, 그런 다음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저는 제 분야인 체계신학에 대한 비판의 일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내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체계신학은 사물을 분해하여 우리 앞에 놓고,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보고 조사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미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연구의 모든 세부 사항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취하고, 그의 선재, 그의 성육신, 그의 신성, 그의 인성, 그의 단일성, 그의 두 상태를 연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사건, 그 사건들을 해석하는 그림, 그의 세 가지 직분 등을 연구하지만,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조립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르치는 동일한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계적 분석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험합니다. 체계적 분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Tony Thistleton이 그의 서사시적 책인 *Christus Victor* 에서 Gustav Aulen이 루터가 Christus Victor만을 가르쳤다고 비판한 것은 옳습니다.

아니요. 그는 또한 합법적 형벌 대속을 가르쳤습니다. 루터의 글, 성금요일 설교, 누가복음 24:36-47을 들어보세요.

성금요일 설교, 누가복음 24:36-47. 인용문: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고 내가 은혜와 용서를 얻으려면 누군가가 이를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지불과 희생을 치르지 않는 한 벌과 진노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Christus Victor가 아닙니다, 친구들이여.

그것은 Christus Victor이고, 법적 신학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벌을 치르신 곳입니다. 존 칼빈, 1509년에서 1564년, 루터와 칼빈의 주요 차이점은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일관성과 체계의 차이였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책 12장부터 17장까지는 중재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이것들은 제 박사학위 논문의 장들입니다. 2권, 12~16장, 또는 이 경우 그는 17장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중재자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일을 말하는 성경적이고 칼빈적인 방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중재자이며,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예수가 인간 본성에 참여했음을 강조합니다.

칼빈은 성육신의 필요성을 분명히 강조했고, 형벌 대속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는 인용하기를,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사람이 죄에 대한 벌을 치러야 한다고 썼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참된 사람으로 나오셔서 아담의 인격과 본성을 취하셔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담의 자리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만족의

값으로 제시하시고, 같은 육신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치르셨습니다.

같은 구절에서 칼빈은 인용문에서, 신만이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인간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인간 본성을 신성과 결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안셀름의 메아리, 물론, 사도 바울의 메아리입니다. 칼빈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별도의 구절에서 논의했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지었습니다.

사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는 바울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저주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희생을 통해 나아오셨습니다. 이 희생으로 그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셨고, 인용하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인용문, 우리를 벌을 위해 벌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죄책감은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의 대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떨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칼빈이 형벌 대속을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교리가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놀라운 확신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문, 그의 피 흘림의 효과가, 실례합니다만,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대가로 만족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칼빈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정의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인용문,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벌을 받으셨고, 자신의 피로 인류를 하나님께 미워하게 만든 자들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합당하게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세웠습니다. 바울을 따라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구원과 속죄의 과정을 시작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속죄 교리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성경적 사건과 성경적 그림을

연구하기 위한 서곡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단자들, 소시누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 그리고 더 나은 네덜란드 신학자이지만 여전히 완전히 코셔는 아닌 그로티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현대로 넘어갈 것입니다. 좋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서론, 4부, 속죄 교리의 역사입니다.